****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 ㅣ Office : 02)560-4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두산건설 We’ve 챔피언십 이예원 우승 인터뷰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두산건설 We’ve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4월 3일(목) ~ 4월 6일(일) |
| 3 | 장 소 | 동래베네스트 [아웃(OUT) / 인(IN)코스]  |
| 4 | 주 최 | 두산건설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2억 원 (우승상금 2억 1천6백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79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황유민, 박보겸, 신지애, 박현경, 박지영, 마다솜, 이예원, 배소현, 고지우이가영, 김수지, 리슈잉, 유현조, 전예성, 김우정, 송은아, 박지혜3, 조이안황민정, 짜라위 분짠, 임희정, 박결, 유효주, 이율린, 박혜준, 유현주, 김민솔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3라운드] 10시 ~ 16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이예원 FR 2언더파 70타,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(69-68-69-70) 우승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84>

**우승 소감**

정말 기쁘다. 우선 새로운 시즌 시작되고 첫 승을 빨리 신고해야 다승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오늘 정말 집중하려 노력을 많이 했다. 끝날 때쯤 실수 나와서 분위기 전환하려고 노력했고,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더니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다.

**18번 홀 들어갈 때?**

17번 홀에서 정민 언니가 버디 했는데, 언니의 잘 한 플레이를 인정하고 나는 18번 홀에서 보여주자 생각했다. 긴장해서 실수만 하지 말자고 생각했다.

**긴장 안했나?**

세컨드 샷부터 긴장이 많이 됐는데 그냥 자신 있게 치고 후회하지 말자고 생각했다. 잘 맞았고 오르막 8미터 이글 퍼트가 남았는데, 그린스피드가 빨라 거리만 맞추자는 생각이었다. 들어갈 줄 몰랐다.

**홍정민 어프로치가 위협적이었는데? 봤나?**

안 보려 했는데 환호성 들려서 봤다.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멈추더라. 연장 갈 생각으로 일단 버디로 마무리 잘 해보자는 생각이었다.

**홍정민과 두산 매치 플레이에서도 우승 경쟁을 했었는데?**

생각났지만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다.

**이글 상황 복기한다면?**

이글 꿈만 같았다. 스스로도 놀랐다. 사실 처음에는 3번 우드 치려고 했는데 바람도 잦아들고 있었고, 캐디 오빠가 2번 유틸(18도)을 추천해서 쳤다.

**홍정민의 샷을 보고 바꾼건가?**

아니다. 언니 샷 보고 바꾼 건 아니고 원래 2번 유틸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.

**전후반 플레이가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?**

어제 후반부터 드라이버 흔들렸는데 그 때문인지 전반에는 자신 있게 스윙 못했다. 내 리듬을 맞추려 노력했고, 후반부터는 리듬을 찾아서 잘 칠 수 있었다.

**쇼트퍼트 실수?**

라운드당 1개 정도 실수하는 것 같다. 쇼트퍼트 실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 다음 홀에 흐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흔들릴 뻔했다. 흐름 바꾸려 노력했다.

**이글 우승?**

챔피언조에서 마지막 홀 이글로 우승한 것 처음이다.

**미숫가루?**

원래 좋아하진 않는데 팩으로 된 거 나와서 우유 타 먹으니 맛있었다. 두 달 동안 밥 먹고 한 팩씩 챙겨먹었다. 전지훈련에 트레이너 코치님과 같이 갔는데 살찌우고 싶다고 했더니 챙겨오라고 하셨다.

**비거리 늘었나?**

비거리 조금 늘었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닌 거 같다. 근데 작년 8-90%로 치던 거리가 올해는 70% 정도로도 비슷한 거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**근육량도 늘었나?**

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

**미숫가루 계속 먹을 건지?**

조금이라도 체중 빠지거나 힘들다 생각하면 또 챙겨 먹겠다. 그리고 체력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헬스장 가서 컨디셔닝 받고 지치지 않게 월요일을 활용할 생각이다.

**전지훈련?**

시드니로 다녀왔다. 날씨도 좋고 골프장도 좋은 곳 많다. 쇼트게임장 잘 되어 있다. 샷도 중요하지만 퍼트 연습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레슨도 받고 부족한 거리 연습을 많이 했다.

**4승 목표라 했는데?**

작년 하반기에 우승 찬스 몇 번 있었는데 주말에 항상 아쉬웠다. 속상했다. 동계훈련 열심히 준비했고 기회 오면 잡자고 생각했다.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러닝과 웨이트 많이 했다.

**다승왕 외 다른 상은 생각없나?**

우승 많이 하면 다른 상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. 그리고 그냥 우승이 할 때마다 짜릿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다.